

경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신라시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다. 첨성대와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은 신라시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되며, 경주는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도시가 되었다. 경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았다.

글·사진 김효정

신라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정신을 엿보다

국립경주박물관



옛 숨결을 간직한 '신라역사관'

요즘 국립경주박물관은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2025 APEC 정상회담 개최지로 주목받았고,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기다란 벽면을 채운 미디어 아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정상회담을 기념하려 설치한 작품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메인 전시관인 신라역사관은 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던 천년왕국 신라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신라(新羅)라는 국호는 지증왕(재위 500~514년) 때 확정된 것으로 '덕업일신(德業一新) 망라사방(網羅四方)'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날이 새로워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삼국 통일로 전국을 아우른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신라역사관은 1975년에 지은 것으로 건축가 이희태가 설계했다. 외부에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정방향의 누각 형식인데, 경복궁의 경회루를 모티브로 했다. 총 네 개의 전시실로, 1~3실은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고, 4실은 국은 이양선 박사의 기증품을 전시해 두었다.

신라 건국 후 300년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무덤은 널무덤에서 덧널무덤으로 변화했다. 널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짠 널(목곽)을 넣었지만, 덧널무덤은 나무로 만든 큰 덧널(목곽) 속에 널과 껌문거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였다. 권력자의 무덤에서 발견된 쇠투검창과 쇠도끼 등으로, 그 시절 철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전시관에서는 신라의 황금 문화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황금은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해 가던 마립간 시기(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많이 활용되었다.

GYEONGJU NATIONAL MUSEUM



150년간 황금문화를 꽃피운 신라는 관을 비롯한 허리띠,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 각종 장신구뿐만 아니라 신발, 무기, 마구(馬具), 그릇 등을 만드는 데 금을 사용했다. 이런 각종 금제품을 무덤 안에 넣어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과 내세의 고귀한 삶을 기원했다.

박물관 한쪽에는 유물 모형을 직접 만져보고,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멀게만 느껴지던 유물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반갑기도 했다.

불교문화의 아름다움 '신라미술관'

신라의 대표 문화유산은 황금과 불교에 바탕을 둔다. 신라 미술관은 법흥왕(재위 514~540년)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신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불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술관 1층에서는 불교의 우람한 신장상과 화려한 금동불상, 돌부처 등을 전시해 두었다. 불교 조각은 불교의 가르침과 신앙을 입체적인 상으로 표현한 미술 분야로, 실제로 대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부처의 모습을 담은 불상은 경전과 함께 불교가 전래했을 때부터 전해졌고, 신라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요구와 취향에 맞게 다양한 상을 만들었다.

신라인은 불교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금강역사, 사천왕, 팔부종과 같은 다양한 신장상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강인한 표정과 다부진 몸, 힘이 실린 자세에서 불국토 신라를 수호하는 이들의 임무를 생생히 보여준다.



전시관에는 손안에 들어올 만한 작은 불상도 만나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30cm 이하의 작은 금동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청동으로 형상을 만든 뒤 겉면에 금을 입혀 부처의 황금빛 몸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불상과 보살상은 별도의 공간에 안치하거나 사리장엄구의 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인 6~7세기에 유행한 반가사유상, 현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물로 손꼽힌다. 반가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출가 전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됐다.

전시를 관람하며 특히 눈에 들어왔던 부처는 보석으로 장식된 불상 대좌다. 숨죽인 채 마음속으로만 수십 번 아름다움의 감탄이 쏟아졌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얼굴, 비율이 잘 맞는 신체 비례, 선으로 새긴 옷 주름, 양어깨 위에 걸친 법의 등 통일신라 시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대좌는 팔각형에 연꽃잎 모양으로 만들었고, 광재는 넝쿨과 불꽃무늬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거대한 크기의 약사불에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180cm에 가까운 큰 체구에 조형미가 뛰어나 경주 불국사의 아미타불, 비로자나불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 불상으로 불린다. 약사불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며,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익을 주는 부처로 여겨졌다.



info.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museum.go.kr

관람시간

매일 : 10:00~18:00
 입장마감 : 관람 종료 30분전 까지

휴관일

1월1일, 설날, 추석
 임시 휴실일 : 3월 첫 번째 월요일

입장료

무료(무료 대상 : 상설전시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
 (단, 유료 특별전시는 제외)

관람 문의

054-740-75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왕실의 생활 문화를 담은 '월지관'

잔잔한 연못 위에 비친 달과 함께 어우러진 궁궐의 모습은 로맨스가 가미된 퓨전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다. 월지관은 경주 동궁과 월지(안압지)에서 발견된 약 3만 점의 통일신라시대 국가유산 중에서 1,100여 점의 국가유산을 전시한 공간이다. 월지는 신라 동궁 안에 있던 인공 연못으로, 조선시대 이래 오랫동안 안압지로 불렸으나 신라 사람들은 월지라고 했다. 문무왕 14년(674)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궁궐은 나라의 핵심 공간이자, 국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믿음으로 엄청난 공을 들여 궁궐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월지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에는 신라 궁중 문화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금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칠기는 다른 유적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왕실이나 최상위 귀족들만 이런 물건을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초의 심지를 자르는 데 쓴 초심지 가위가 대표적이다.

문무왕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삼국이 공통으로 믿고 받들던 불교를 적극 활용했다. 자신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하라고 유언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으며, 불교를 통해 모두 하나가 되려는 사상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중앙 군사 조직인 구서당에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함하고, 세금을 차별 없이 부과하고자 도량형을 통일하며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길 바랐다.

월지관에서 나오면 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으로 평가되는 성덕대왕 신종(국보)을 비롯해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쌍벽을 이루는 통일신라 초기의 고선사 삼층석탑(국보) 등을 만나보는 행운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신라인의 삶과 정신, 그리고 천 년 왕국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잊고 지냈던 시간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